17강 부르디외와 칸트

1. 칸트 미학이 지향했던 순수성을 공격하다!

◇ 대중 미학의 논리를 재구성하려고 시도하자마자 이것이 칸트 미학의 부정적 반대항처럼 보이고, 대중의 에토스는 암묵적으로 「미의 분석학」의 각 명제에 대해 그것을 부인하는 반-명제를 맞세우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니다. 미적 판단의 독자성을 구성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 칸트는 교묘하게 '쾌적한 것 또는 맘에 드는 것'과 '즐거움을 주는 것'을 구분하며, 더 일반적으로는 명상의 진정 미학적인 특징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특징인 '무관심disinterestedness'과 '쾌적한 것'을 규정하는 '감각의 관심the interest of the senses', 그리고 '선'을 규정하는 '이성의 관심the interest of Reason'을 확실하게 분리시키려고 노력했다. 이와 반대로 단순히 기호의 기능에 그치더라도 모든 이미지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민중계급은 흔히 아주 분명하게 모든 판단을 내리려고 한다. 따라서 죽은 병사를 찍은 사진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재현 대상의 현실 또는 그런 재현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 즉 전쟁에 대한 공포심을 갖도록 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그런 공포심을 보여줌으로서 사진가가 보여주려고 하는 전쟁에 대한 공포감을 거부하는 반응을 통해 일정한 판단을 불러일으킨다. (…) 의미도 흥미도 없는 무의미한 이미지 또는 애매한 이미지를 거부한다는 것은 곧 그것을 목적 없는 최종목적, 스스로를 의미하는 이미지 따라서 자신 이외의 지시대상은 갖고 있지 않는 이미지로 간주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아름다움, 그러니까 미(the beautiful)를 선(the good)이나 진리(the true)와는 독립적인 것으로 사유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 그의 노력은 『판단력 비판(Critique of the power of judgement)』에서 공식화되는데, 이 책에서 칸트는 다음과 같이 아름다움에 대한 말하고 있다. "취향은 어떤 대상이나 표상방식을 일체의 관심을 떠나 만족이나 불만족에 의해서 판단하는 능력이다. (이와 같은 판단에 의해 가능한) 만족의 대상은 아름답다고 말해진다.(§5)"

◇ 부르디외를 유명하게 만든 책,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은 노골적으로 칸트의 미학을 공격하면서 출발한다.

◇ 부르디외는 칸트의 『판단력 비판』을 사회철학적으로 비판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 부르디외에 따르면 칸트가 말한 대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부르주와 계층에만 국한될 수 있는 것이다.

◇ 대중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움, 쾌적함, 그리고 윤리적인 메시지는 분리 불가능한 것으로 결합되어 있다.

2. 취향은 가장 강고하고 폭력적인 아비투스이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특수한 생활조건과 관련된 조건의 산물이 미적 성향은 동일한 조건의 산물인 모든 사람들을 함께 묶어주는 반면 그밖의 다른 사람들과는 구분시켜준다. 그리고 핵심적인 측면에서 구분시켜준다. 왜냐하면 취향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모든 것, 즉 인간과 사물 그리고 인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스스로를 구분하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 구분된다. 취향taste(즉 겉으로 표현된 선호도)은 피할 수 없는 차이의 실제적인 확증이다. 따라서 취향이 정당화될 때 순전히 부정적으로, 즉 다른 취향들에 대한 거부의 형태로 확인되는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니다. 아마 취향의 문제만큼 모든 규정이 부정일 수밖에 없는 다른 영역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취향은 무엇보다도 먼저 혐오감, 다른 사람의 취향에 대한 공포감 또는 본능적인 짜증("구역질난다")에 의해 촉발되는 불쾌감이다. "취미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마라"라는 말도 있지만 그것은 "모든 취미가 본성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각 취향이 스스로를 자연스럽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말 거의 그렇기 때문에 취향은 아비투스가 된다. 그리하여 다른 취향을 비자연적이며 따라서 타락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부하게 된다. 미적 불관용aesthetic intolerance은 가공할만한 폭력성을 갖고 있다. 다른 생활양식에 대한 혐오감은 각 계급을 갈라놓고 있는 가장 강력한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계급내의 동족결혼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이다. 스스로 정통문화를 소유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참을 수 없는 일은 취향에 따라 의당 분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취향들을 모욕적으로 재결합시키는 일일 것이다. 이것은 곧 예술가들과 심미주의자들의 게임 그리고 예술적 정통성을 독점하려는 이들의 투쟁이 얼핏 보기보다는 그렇게 순진무구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술을 둘러싼 투쟁에서는 항상 특정한 생활양식에 대한 강요가 핵심적인 요구로 자리잡고 있다. 즉 하나의 임의적인 생활양식을 전통적인 생활양식으로 변형시키고 나머지 다른 생활양식을 자의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한다.『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반성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취향은 어떤 개인의 아비투스를 가장 결정적으로 결정하는 요소이다.

◇ 부르디외는 미적인 것을 느끼는 취향이 얼마나 강하게 계급적 구별의식을 실현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 결국 칸트가 강조했던 미적인 독립성은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으로부터 자신을 독립시키기 위한 무의식적인 전략, 즉 구별짓기 의식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 사실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과는 구별되는 취향을 획득한 것은 대학이나 전문기관에서 시간과 자본을 들여서 감각적인 쾌적함과 무관한 작품을 그 자체로 감각할 수 있는 연습을 받은 결과일 뿐이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